

“라면 한 개 2000원 진짜냐”...李, 물가대책 지시

NEWS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물가 문제, 국민 너무 큰 고통” 민주, 추경 신속 처리에 당력 집중...“지체할 시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챙겨달라”며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법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허가 놀라웠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기 6개월간 식품·외식기업 60여곳이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계약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10개 중 7개꼴이다.

6개월간 5% 이상 오른 품목은 19개에 이른다. 초콜릿은 10.4% 치솟았고 커피는 8.2% 상승했다. 빵과 잼, 햄·베이컨은 각각 6%가량 올랐다.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의 경우 1년 전보다 6.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의 세 배 이상이었고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4.1%)보다도 높았다.

농심과 오뚜기(007310), 팔도가 앞다퉀 100~200원씩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2천원 안팎의 제품도 많아졌다.

농심은 컵라면 중 신라면통바, 신라면블랙, 신라면건면, 짜파게티더블랙, 너구리 큰사발 등의 편의점 가격이 1800원이다. 신라면블랙 봉지라면은 1900원이었다.

오뚜기 제품 중에선 2000원짜리 컵라면이 진짱빵, 얼치크라면, 짜술랭, 보들보들치즈볶음면 등 10종에 가깝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나”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도 나서겠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급 내수 침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이다.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쳐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대상

전남도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도모,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사업 신청은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나 임산확인서, 난임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영유아 양육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jnmall.kr>)의 대상자별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용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주문하면 배송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꾸러미 지원으로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맛깔난 광주김치, ‘더현대 서울’ 상륙했다

시, 15일까지 서울서 ‘광주김치 팝업스토어’ 운영

‘김치의 보고장’ 광주에서 담긴 ‘광주 김치’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 상륙했다.

광주시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광주김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대통령상 수상 김치(김효숙, 임란)와 프리미엄 광주 김치(빛고을김치), 광주김치응용요리(다르다김밥), 김치 관련 굿즈 등이 선보인다.

대통령상 수상 김치는 ‘2017년 광주 김치축제 김치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한식대첩2’의 준우승자인 김효숙 김치명인, ‘2023년 광주김치축제 김치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임란 명인의 김치를 맛볼 수 있다.

또 광주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김밥업체인 ‘다르다김밥’의 목은지참치 김밥, 볶음김치김밥, 볶음김치주먹밥, 광주상추튀김김밥 등 친근하면서도 색다른 맛의 김치를 활용한 김밥을 만나 볼 수 있다.

김치 굿즈로는 동치미 모양의 더운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동치미 냉감 담요부터 키링, 양말, 앞치마, 손수건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됐다.

특히 1인용 소포장 김치 등 엠제트(MZ)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제품 구성을 통해 젊은 세대의 감각에 부합하는 새로운 김치 소비문화의 제안할 예정이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경험을 추구하는 등 매운맛을 즐기는 엠제트(MZ)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맵지진 진한 감칠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매운 김치 등 다양한 김치도 선보인다.

광주김치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젊은 소비층과의 소통을 강화해 김치 소비문화의 세대 저변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도 함께 전시한다. 참여업체는 곱부루어리(전통주), 위로푸드(김조김치), 라운푸드(한과), 느린떡거리(부각), 사단법인 참(광주주먹밥 스낵), 임형문꿀(꿀) 등 8개 사이다.



광주시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광주김치의 수도권 유통 확대와 함께 지역 식품산업 전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판로 다각화에 나서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김장대전 인스타그램 팔로우 참여, 광주 시카오희 채널 가입 등 광주와 관련된 SNS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한다.

주최회 경제창업국장은 “‘더현대 서울’과의 협업이 광주김치를 포함한 지역 소상공인 제품의 수도권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도, 한달간 도민 불편 규제 집중 발굴

민생경제·일자리·미래산업 등 분야 접수

전남도가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찾아라, 도민 불편규제!’ 민생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발굴은 도민의 사회·경제활동과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30일까지 도민이든 누구나 전남도 대표누리집 행정규제개선 창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발굴 분야는 △지역영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청년 취·창업, 경력단절 등 일자리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

산업 △출생·육아, 노인 등 보건의료 △1인가구·교육·안전·환경 등의 일상생활 등 도정 모든 분야다.

전남도는 접수 의견을 검토해 △중앙규제는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음부즈만’에 직접 건의해 처리 진행 상황 전반을 관리하고 △지방규제는 자체 개선토록도 관련 부서, 시군과 협력할 계획이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은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다. 작은 변화가 큰 힘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한 이번 집중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살아?

이 앱 #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맛집으로 핫플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살 #**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